

독자마당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도 좋습니다. 원고가 채택 되는 분께는 문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희망세상』이 되겠습니다.

퀴즈

1.

지난 1997년 IMF 경제 위기 후 가족 동반의 생계형 자살이 대량 발생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들어진 이곳에서는 자살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의 이름은?

- ① 생명인권운동본부 ② 비정규노동센터 ③ 자살예방협회

2.

지난달 27일 드물게 한 편의 생태다큐멘터리가 극장에서 개봉했다. 동물의 교통사고 '로드킬'의 실태를 담은 한국의 첫 보고서이기도 한 이 영화의 제목은?

- ① 어느 날 그 길에서 ② 작별 ③ 침묵의 숲

3.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기념계승 단체인 이곳은 내년이 부마민주항쟁 발발 30년, 민주공원 개관 10년을 맞는다고 한다. 새로운 해, 새로운 의미로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는 이 단체는?

- ① 6·10항쟁기념사업회 ②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③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내 미안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만든 이 단체와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사업회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 ① 인도네시아 인권연대 ② 싱가포르 인권연대 ③ 버마행동

보내실 곳

정답을 적어 4월 18일(금)까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hope@kdemo.or.kr 『희망세상』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희망세상』 2008년 5월호에 발표합니다.

3월호 정답

- 태안
- 계훈제
- 우리 땅 걷기 모임

3월호 퀴즈 정답자

- 조복형** 충남 천안시 성환읍
방학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이필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민춘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장훈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과거사 청산이 필요한 이유

나는 지난 2월 호 『희망세상』에 실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관련 글을 읽고 과거사 청산이 이 시점에 필요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더욱이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역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2010년 4월을 끝으로 폐지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나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공로를 꼽으라면 이 ‘과거사청산’을 내세우고 싶다. 과거사청산은 이제 한국사회가 완전한 민주사회 궤도에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과거사청산이 국론을 분열시킨다거나 지나간 일을 언급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식의 주장을 하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일부 국민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과거사청산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MBC문화방송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이 프로그램에선 제주 4·3과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보도연맹 사건) 등 굵직굵직한 과거사 사건을 다루었는데 나는 가족이나 친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아파하는 유가족들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과거사 청산이 필요한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과거사 청산의 핵심 내용은 바로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

로잡아 억울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화해를 이룬다는 것이다.

일제하 강제동원문제, 친일파,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 저질러진 민간인학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문사 등 복잡하게 전개됐던 한국 현대사의 많은 ‘문제’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거사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통과된 이후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중요한 진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날 한국사회는 많은 부문에서 민주화를 일구어냈다. 우리는 흔히 ‘민주화’라는 단어를 때로는 너무 무겁게 때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민주화’란 말 그대로 다양한 민(民)의 정당한 요구가 사회에 받아들여져 사회에 하나의 영향을 끼치고 개인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해 참된 가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과거사 청산이 필요한 것이다. 복잡하게 전개된 현대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고 오늘날까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상식’이요, ‘도리’가 아닐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과거사 청산을 시행했다. 독일, 프랑스, 중국, 남아공 등이 그러하다. 이들 나라는 2차 대전(중·일 전쟁 포함) 시기 침략군에 협력한 세력이나 오랜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잘못된 일들을 청산했다. 이제 우리 역시 진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이 요구되는 시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결코 지나쳐버려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이념이나 정권을 떠나 다함께 노력하자. 그리하여 희망찬 미래 한국사회를 건설해나가자.

윤성환(대구시 동구 신천동)